

 사단 법인	배우고 가르치며 따뜻한 세상을 여는 초등돌봄 실천 초등돌봄교사연합회 Elementary School Care Teachers Association	보도자료
배포일	2020. 11월 11일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55-1, 302	http://ecta.or.kr	

담당 ☎ 02-2291-6566, 010-8746-8992
사무총장 김지섭

교육부 소속의 초등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촉구

초등돌봄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의 안정화를 위해

□ 양적확대에 집중한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정책, 교육부 소속의 초등돌봄 특별법으로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이사장 허억)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현장 갈등의 증폭과 돌봄교실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고용안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 소속의 초등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속한 공적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2004년 2.17대책이 발표되면서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 발표 및 시범운영의 초등돌봄교실 시작 이래 16년여! 2014년~2016년 원하는 모든 학생을 무상으로 학교가 돌보겠다는 초등돌봄 무상지원 확대정책이 발표되면서 공짜의 시대가 열리고 학교는 부족한 돌봄교실을 위해 겸용교실을 만들어내야 했다. 단시간 근로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채용되었고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돌봄교실 행정업무는 고스란히 방과후 담당교사들과 전일제전담사의 몫이 되었다.

교육부는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양적확대 멈추시고 전국의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임금유형 통일과 함께 정당한 직업군으로 제도적 기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한 번 촉구합니다.

□ 갈등증폭,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초등돌봄 민간위탁 허가법이다.

구분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년계획	14,610여실(증700여실)	573개소(증 400개소) 15,000명	4,225개소(증 8개소) 초등 10만명	310개소(증 30개소) 초등 6천2백명

2018년 보건복지부는 기존 돌봄교실과 운영대상, 시간, 내용이 비슷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하면서 인력에 대한 명칭을 센터장과 돌봄교사로 칭했다. 여기서부터 기존 돌봄전담사들의 혼란이 야기 되었다. 위 표에서 보면 2020년 지역아동센터의 개소폭이 현저히 낮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안 돌봄교실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교육부의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이 맡고 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 존재했어야 할 파트이다.

현재의 초등돌봄을 여기까지 있게 한 전담사들의 의견은 안중에 없고 은근슬쩍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초단계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서 위탁을 명시한 법안은 이미 사회적 파장을 예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작금에 이르기 까지 현장에서 코로나19 및 국가적 재난상황속의 학교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직 돌봄교실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에게 더 이상 고용불안을 조성으로 자존감 및 상실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학교 내 병설초등돌봄교실 운영체제로 해법 찾아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초등돌봄교실 운영 체계를 병설유치원 운영체계에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돌봄교실 업무과중으로 힘든 교원과의 마찰을 없애고 학교 안 또 하나의 영역으로 잘 발전시켜 학생들이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교실이 되도록 더욱 끈고히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